

VD Special

우리삶의

Navigation

테마 인터뷰

스승

나눔의 생명기술로 세계적인 '청출어람'을 하리라

얼마전 세계 최초로 '아버지 없는 쥐'가 탄생하였다는 뉴스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한일 공동 연구팀이 4월 22일 세계적 권위의 과학지 네이처에 논문을 게재하며 알려진

이 소식은 신화이나 나올법한 '난자만을 이용한 처녀생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과

학사의 쾌거였다. 이 성과의 한 주역이 바로 한국 바이오벤처기업의 신주주자 마크로젠

이다. 미세한 유전자(gene)를 통해 거시적(Macroscopic) 현상을 연구한다는 뜻의 회사

이름 마크로젠(Macrogen)처럼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담당하게 유전공학계의 거목으

로 자리매김한 서정선 대표를 만나본다.

마크로젠

서정선 대표

‘아버지 없는 쥐’를 통해 얻은 진정한 성과는 _ 지금까지 난자나 정자 한쪽만의 단성생식으로 개체를 발생시키는 것이 곤충류나 어류 등 하위동물에서는 발견되었지만, 포유류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이었다. 이번 연구결과는 단성생식을 불가능하게 했던 각인 현상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찾아내 실험적으로 증명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이다. 우리나라 바이오벤처의 연구결과가 네이처지에 실린 것은 처음으로, 그만큼 우리나라 유전자 분석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알렸는데 자부심을 느낀다.

국내 바이오산업의 현주소 _ 생명공학 관련 대학 연구소와 인력들은 세계 수준에 도달했다고 본다. 반면 바이오산업면에서는 아직까지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장기적으로 바라보아야 성과를 볼 수 있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문제다. 정부가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총체적인 시스템 개혁과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정보통신기술과 결합된 바이오 산업은 경쟁력있는 첨단산업이자, 새로운 국부 창출의 금광이다.

내가 꿈꾸는 바이오벤처의 비전, DNA실�크로드 _ 유전자 자체가 상품이 되는 21세기에는 유전자 확보가 자원이 되는 시대이다.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서양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북방민족을 중심으로 유전자 DB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부터 10년가량 투자하면 우리나라는 IT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시스템을 기반으로 동북아 의료산업의 허브가 될 가능성이 높다. 30억 달러를 들여 게놈프로젝트를 주도한 미국이 세계 의료시장의 리더가 되고 있지 않은가. 4년 전부터 한국-몽골 등 북방계열 민족의 유전자DB를 만들자고 주장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동북아 기능성 게놈프로젝트’를 필두로 몽골 소수인종의 유전자DB를 구축, 질병유전자 칩을 찾아낸다면 일본, 중국과 달리 미국식 의료시스템을 갖춘 우리나라에 기회가 있다고 자신한다.

내 마음의 지도를 그려준 스승들 _ 국어사전에서는 정의하기를 스승은 ‘자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내게는 진정한 스승이 두 분 계신다. 한 분은 우리나라 ‘분자생물학계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일천(一泉) 이 기녕 선생님이시다. 서울대 의대 은사인 이기녕 선생님은 학문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몸소 보여준 선비분이셨다. 평생 주식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셨는데, 내가 세운 마크로젠이 코스닥에 상장을 한 후에는 항상 주식보도를 빼놓지 않고 보셨다는 말을 듣고 내리사랑에 감동했다. 또 한 분의 스승은 같은 길을 먼저 걸어가신 선배이기도 하신 아버님(서병설 전 서울대 의대 교수)이다. 의학의 길을 나의 운명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게 해주셨고, 학자는 평생 연구


하는 삶을 생활 속에서 가르쳐주셨다. 지천명의 나이를 먹었는데도 아직도 두 분의 그늘이 그림다. 청출어람을 하는 것이 두 분 스승님이 원하시고,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는 생각에 연구에 매진하며 그 허전함을 다잡고 있다.

나의 또다른 자랑, 제자들 _ 제자들이 세계 굴지의 의대를 비롯한 연구소와 국내 대학의 교수로 자리를 잡고 있다. 스승이 내게 한 것만큼 제자들에게 아낌 없이 아는 것을 내주었는지 모르겠다. 진정한 스승은 자신을 기억해 주길 바라지 않아야할텐데, 지금도 스승의 날이면 연락을 해오는 제자들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반갑고 뿌듯한 걸 보니, 내게 아직은 스승의 자리가 아득한 듯하다.

이 땅에서 바이오펠터기업가로 산다는 것은 _ 벤처기업가가 된 후 초기엔 마음 상하는 일이 많았다. 필요한 사람이 찾아오는 교수직과는 달리 벤처기업인은 스스로 필요한 것을 찾아 황무지를 뛰어다녀야 했기에 낯선 관계설정엔 힘들 때도 있었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특히 상장 후 4년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칠곡같은 밤같았다고나 할까. 처음 가는 길이기도 두렵고, 제대로 가는 것인지 불안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방향이 정해지고, 어디쯤 가고 있는지 짐작이 되기에 한결 수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하고싶은 일을 하고 있기에 행복하다는 거다. 개인적으로 세상을 많이 알게 되고, 모험 속에서 성취감도 맛보았다고 생각한다.

나의 도반, 바이오벤처기업인과 나누고픈 말 _ 먼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던 말을 강조하고 싶다. 가만 앉아서 투자의 황무지네, 대기업이나 제약회사가 기술을 왜 안사주냐고 해봤자 소용없지 않은가. 우선 기술을 상업화하여 빨리 시장에 팔고 그 경험을 쌓아 따라 잡는 것이 최선이다. 마켓을 직접 뚫고 나아가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을 두려워말자. 한발 빨리 시장에 진입해 부딪히며 틈새를 찾고, 기술력을 인정받고, 격차를 점차 줄여나가자.

나와 마크로젠의 향후 행보에 대하여 _ 작년 매출 70억원을 달성한 마크로젠은 현재 세계 50여 개국 1300여 개 대학과 연구소에 유전자 칩 정보기술을 판매하고 있다. 향후 사업방향은 유전자 칩과 마우스 사업으로 주력할 예정으로 올 매출예상액은 100억원이다. 내년 6월이면 손익분기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매출이 300억원에서 500억원이 될 때까지는 DNA염기분석 등 툴비즈니스 중심으로 사업을 펼치고 10년 뒤에는 스트레스트치로 등의 신약을 개발할 계획이다. 개인적으로는 마크로젠 사업과는 별도로 국책사업이 될 동북아 게놈프로젝트에 주력할 생각이다.



Tip

인터뷰 뒤에 나눈 건강 이야기

서정선 대표는 현재 서울대 의대 교수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나이보다 훨씬 젊어보이는 서대표만의 건강비결이 있지 않을까. 서대표는 10년전부터 채식의 하고 녹차를 즐겨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담배는 피우지 않고, 술자리는 꼭 필요할 때만 참석한다고,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태극권 수련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기수련은 머리가 맑아져 벤처기업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한다.